

# 식민지 조선에 본점을 둔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자본계열별 · 업종별 추이와 구성\*

朴二澤\*\*

I. 머리말	추이와 구성
II. 자료 소개와 자본계열별 회사분류	V. 자본계열별 업종별 납입자본금에 대한 변이-할당분석
III. 자본계열별 납입자본금의 추이와 구성	VI. 맺음말
IV. 자본계열별 업종별 납입자본금의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42년 초 조선의 산업자본의 자본계열을 보여주는 『年刊朝鮮』과 1921년부터 1942년까지 대체로 격년으로 남아 있는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의 정보를 통합하여,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의 자본계열별 업종별 구성의 추이를 파악하였다. 본 논문은 식민지 조선의 회사에 관한 연구에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 수록된 회사들의 자본계열을 정리하여 제시하여, 조선 본점회사의 자본계열 및 지배구조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일본 재벌 자본의 조선 진출, 국책성 회사의 자원 개발 기반 형성, 조선내 계열 형성 등이 조선 본점회사의 자본형성에 미친 영향과 그들간의 관련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적 기초를 마련했다. 셋째, 조선 본점회사의 업종구성 변화를 주도한 자본계열의 구성을 제시하여, 식민지기 공업화 및 중화학공업화의 기반 형성 및 추진 주체에 대한 분석을 촉진시킬 것이다.

주제어 : 본점회사, 납입자본금, 자본계열, 회사의 업종, 변이-할당분석

\* 낙성대경제연구소 월례 발표회에 참석하시어 유익한 논평을 주신 선생님들과 익명의 3인의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

## I. 머리말

1920년 이후 식민지 조선의 본점회사의 납입자본금은 당시 일본 본토와 대만에 비할 때 훨씬 빠르게 증가하였는데,<sup>1)</sup> 회사자본금의 성장에는 일본 재벌계 회사의 자금유입이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 식민지기 회사 자본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1942년에 東洋經濟新報社가 발간한 『年刊朝鮮 第1回 昭和17年版, 朝鮮産業の共榮圈參加體制』(이하 『年刊朝鮮』이라 표현한다)이다.<sup>2)</sup> 이 책에는 1942년 초 식민지 조선의 산업자본의 자본계열별 구성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자료의 특성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검토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942년 초의 상태가 어떤 역사적 변천을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조선 본점회사의 납입자본금의 성장에는 일본 재벌계 회사의 자본유입 이외에도 다양한 자본계열의 성장이 기여하였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 예컨대, 일본 재벌계 자본의 조선진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회사의 설립 및 운영의 실태가 밝혀지면서, 일본 재벌계 자본의 진출에 조선총독부가 수행한 역할 및 조선계 자본 참여의 실태들이 드러나고 있으며,<sup>3)</sup> 주요 재벌계 자본뿐만 아니라 王子系, 林兼系와 같은 기타 산업자본계열의 진출 사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으며,<sup>4)</sup>

- 
- 1) 박이택, 「20세기 전반 한국·일본·대만에서의 회사의 성장-비교경제발전론적 고찰」, 『경제사학』 43(1), 경제사학회, 2019.
  - 2) 『年刊朝鮮 第1回 昭和17年版, 朝鮮産業の共榮圈參加體制』는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하였는데, 이 책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서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趙璣濬, 『全訂版 韓國資本主義 成立史論』, 大旺社, 1982; 김성수, 『일제하 한국경제사론』, 경진사, 1985; 이승렬, 「1930년대 전반기 일본군부의 대륙침략관과 '조선공업화'정책」, 『國史館論叢』 67, 국사편찬위원회, 1996.
  - 3) 김은정, 「일제의 조선무연탄주식회사 설립과 조선 석탄자원 통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9; 배석만, 「朝鮮重工業株式會社 經營資料의 內容과 性格」, 『항도부산』 20,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4; 정안기, 「1930년대 電力國策, 「朝鮮送電(주)의 연구」, 『동방학지』 16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 정안기, 「1930년대 朝鮮型特殊會社, 「朝鮮電力(株)의 연구」, 『동방학지』 17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5; 정안기, 「1930년대 조선형 특수회사, 「조선암록강수력발전(주)의 연구」, 『중앙사론』 47,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8; 정안기, 「1930년대 조선형 특수회사, 「조선중공업(주)의 연구」, 『사회와역사』 102, 한국사회사학회, 2014.
  - 4) 강정원, 「1930년대 북선제지화학공업(주)의 설립과 운영」, 『역사와경계』 123,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22; 이수열, 「식민지 시기 신의주의 일본 제지업」, 『해방도시문화고석학』 17,

재조일본인 기업가들이 조선의 시장에 거점을 두면서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는 계열화 현상 즉 賀田(直治)系, 立石(信吉)系, 香椎(源太郎)系, 弘中(良一)系, 小倉(武之助)系의 형성 및 발전의 실태도 구명되고 있으며,<sup>5)</sup> 조선에서 설립된 특수회사에 대한 사례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sup>6)</sup>

이와 같은 다각적인 연구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일본 재벌계 회사로 분류되지 않는 회사 자본의 성장은 조선에 진출한 일본 재벌계 회사 자본에 비할 때 어느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1921년부터 1942년까지 대체로 격년으로 남아 있는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의 정보와 『年刊朝鮮』의 정보를 통합하여 분석함으로써, 『年刊朝鮮』에 수록된 자료의 특성을 검토함과 더불어, 조선 본점회사의 납입자본금의 자본계열별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식민지 조선의 회사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사적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 수록된 회사들의 자본계열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의 정보가 회사의 자본계열 및 지배구조 연구에 활용될 것이다.<sup>7)</sup> 둘째, 일본 재벌 및 산업자본의 진출, 국책성 회사의 형성 및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7; 香野展一, 「일제하 中部幾次郎의 林兼상점 경영과 수산재벌로의 성장」, 『동방학지』 15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1.

- 5) 김동철, 「부산의 유력자본가 香椎源太郎의 자본축적과정과 사회활동」, 『역사학보』 186, 역사학회, 2005; 김명수, 「식민지 조선경제와 자본가 한말 일제하 賀田家の 자본축적과 기업경영」, 『지역과 역사』 25, 부경역사학회, 2009; 배석만, 「일제시기 부산의 대자본가 香椎源太郎의 자본축적과정과 활동-日本硬質陶器의 인수와 경영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25, 부경역사학회, 2009; 배석만, 「재조일본인자본가 다테이시 요시오(立石良雄) 일가의 기업 활동」, 『한일민족문제연구』 32, 한일민족문제학회, 2017; 이형식, 「조선의 전기왕'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와 조선사회」, 『동양사학연구』 145, 동양사학회, 2018; 정안기, 「전시기 弘中商工(주)의 성장전략과 경영역량-성장·위기·재건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53, 경제사학회, 2012.
- 6) 강정원, 「일제 전시체제기 朝鮮林業開發株式會社の 설립과 운영」, 『역사문화연구』 66,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8; 정안기, 「1930년대 朝鮮型特殊會社 '朝鮮林業開發(주)'의 연구」, 『경제사학』 57, 경제사학회, 2014.
- 7)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의 회사 정보를 자본계열별로 재집계하여 분석한 논문은 없지만, 식민지 조선의 회사 발전을 고찰하기 위해 이 자료의 정보를 재집계하여 분석한 연구들은 상당수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박이택, 「식민지 조선의 기업지배구조-한국인 회사와 일본인 회사의 비교」, 『경제사학』 49, 경제사학회, 2010; 박이택, 「식민지 조선에 있어 회사의 폐업률에 대한 통계적 고찰」, 『대동문화연구』 7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박이택, 「식민지 조선에 있어 회사 자본금의 성장률에 대한 통계적 고찰」, 『한국학연구』 35, 고려대학교

발전, 조선내 계열 형성 등의 역사적 추이를 제시함으로써, 일본계 자본의 조선 진출, 국책성 회사의 자원 개발 기반 형성, 조선내 계열 형성 등이 조선 본점회사의 자본형성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그들간의 관련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선 본점회사의 자본계열별 업종구성의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식민지 공업화 및 중화학공업화의 기반 형성 및 추진 주체에 대한 분석이 촉진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둔다. 제2절에서는 『年刊朝鮮』에서 취하고 있는 자본계열별 회사 분류의 특성에 대해 소개하고, 그 분류를 기본으로 하면서, 보완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확정된 자본계열별 회사목록을 제시한다. 제3절에서는 제2절에서 확정된 자본계열별 회사목록에 따라 집계한 자본계열별 조선 본점회사의 납입자본금의 추이에 대해 고찰한다. 제4절에서는 조선 본점회사의 업종별 성장을 어떤 자본계열이 주도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자본계열별 업종별 납입자본금의 추이에 대해 고찰한다. 업종별 납입자본금의 성장 추세는 자본계열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5절에서는 자본계열별 업종별 납입자본금에 대해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제6절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 II. 자료 소개와 자본계열별 회사분류

본 논문에서 사용한 주 자료는 『年刊朝鮮』과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이다. 먼저, 『年刊朝鮮』이 채택한 자본계열 분류체계에 대해 소개하고, 이 분류체계에 따라 제시된 정보를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의 정보와 통합할 때 발생하는 문제 및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후, 보완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자본계열별 회사분류를 확정한다. 확정된 자본계열별 회사목록은 분량이 많아 부표에서 제시하고, 본문에서는 자본계열별 본점회사와 지점회사의 존속 시기를 정리한 표를 제시한다.

『年刊朝鮮』은 자본계열을 세 가지로 대분류하였는데, 조선에 직접 진출한 내지<sup>8)</sup>

---

한국학연구소, 2010; 박이택, 「식민지기 인천에서의 회사 추이와 그 분포적 특징」, 『인천학연구』 29,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8.

8) 일본제국은 혼슈, 시코쿠, 큐슈, 홋카이도, 오키나와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일본 본토를 내지라

재별 및 산업자본, 선내 주요 산업자본, 기타 일반 선내 재적 회사가 그것이다. 내지 재별 및 산업자본은 三井系·三菱系·住友系, 日窒系·東拓系·日産系, 鐘紡系·大日本紡系·東洋紡系, 日鐵系, 기타 주요 산업자본계로 세분하였으며, 선내 주요 산업자본은 특수회사, 식은계, 기타 일본인계, 조선인계로 세분하였다.<sup>9)</sup> 이상의 분류는 일본 본토에 기반을 둔 자본계열과 식민지 조선에 기반을 둔 자본계열의 구분을 가장 기본적인 분류기준으로 삼은 것이지만, 세분된 정보를 활용하면, 국책성 회사 계열인지 그렇지 않은 계열인지도 파악할 수 있으며, 계열을 형성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도 구분할 수 있으며, 조선내 주요 계열 중에서 일본인계와 조선인계의 구성도 파악할 수 있어서, 조선 본점회사의 역사적 전개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年刊朝鮮』은 세분된 계열에 속한 회사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목록을 이용하여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 등장하는 회사들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보완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첫째, 1942년에 제시된 자본계열별 회사목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1942년 이전에 조선 본점회사로 존재하였지만, 이후 해산이나 합병, 본점 이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사라진 회사들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자본계열의 시기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보완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본계열별 회사목록을 보완하였다. 첫째,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은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에 대한 정보와 연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들이 있는데, 이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목록을 보완하였다. 둘째, 동척계와 일질계의 경우에는 관련회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료들이 있다. 동척계의 경우, 柴田善雅의 연구와 『東洋拓殖株式會社要覽』에 수록된 정보를 이용해서 보완했으며,<sup>10)</sup> 일질계의 경우, 姜在彦의 연구, 大塩武의 연구와 『日本窒素事業概要』에 수록된 정보를 이용해서 보완했다.<sup>11)</sup>

---

붙였다. 내지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는 조선, 대만, 관동주 및 남양군도가 있었다.

9) 東洋經濟新報社, 『年刊朝鮮 第1會 昭和17年版, 朝鮮産業の共榮圈參加體制』, 大海堂印刷株式會社, 1942, 26~34면.

10) 柴田善雅, 『植民地事業持株會社論』, 日本經濟評論社, 2015; 東洋拓殖調査課, 『東洋拓殖株式會社要覽』, 大日本印刷株式會社, 1943.

11) 姜在彦 編, 『朝鮮における日窒コンツェルン』, 不二出版, 1985; 大塩武, 『日窒コンツェルンの研

셋째, 『年刊朝鮮』에는 조선인계에 민대식계, 김연수계, 박흥식계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趙璣濬을 비롯한 한국기업가사 연구자들은 조선인계 재별로 방의석계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sup>12)</sup> 여기에서도 방의석계를 조선인계 재벌에 포함시켰다.

이상과 같이 보완한 자본계열별 회사목록 중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 수록된 것만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 <부표 1>이다. <부표 1>에는 자본계열별 회사목록을 본점회사와 지점회사로 나누어서 제시하였으며, 조선에 직접 진출한 내지 자본계열과 조선내 주요 자본계열을 A와 B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조선 본점회사나 지점회사 중에는 여러 자본계열에 관련회사로 등장하는 것들이 있다. <부표 1>에는 여러 자본계열에 관련된 회사들을 각 자본계열에 중복하여 제시하고, 이 중 주된 자본계열에 대해서는 \*를 붙여 표기하여 두었는데, 이후 분석에서는 이 회사들을 주된 자본계열에 포함시켜 집계하였다. <표 1>은 <부표 1>에 수록된 자본계열별 조선 본점회사 및 지점회사의 존속 시기를 제시한 것이다.

<표 1> 자본계열별 조선 본점회사 및 지점회사 존속 시기

자본계열		본점회사												지점회사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2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2		
내지 자본 계열	三井·三稜· 住友	三井系	■	■	■	■	■	■	■	■	■	■	■	□	□	□	□	□	□	□	□	□	□		
		三稜系				■	■	■	■	■	■	■	■	□	□	□	□	□	□	□	□	□	□		
		住友系																					□		
	日窒·日産· 東拓	日窒系				■	■	■	■	■	■	■							□	□	□	□	□		
		日産系	■	■	■	■	■	■	■	■	■	■								□	□	□	□		
		東拓系	■	■	■	■	■	■	■	■	■	■	□	□	□	□	□	□	□	□	□	□	□		
	三大紡績會社	鐘紡系										■										□	□		
		大日本紡系										■	■												
		東洋紡系										■											□		
	其他主要産業 資本系	日鐵系																					□		
		大川系	■	■	■	■	■	■	■	■	■	■													
		大橋系							■	■	■	■	□	□	□	□	□	□	□	□	□	□	□		
		王子系	■								■	■	■	■	□	□	□	□	□						
		日電系									■	■	■												

究』, 日本經濟評論社, 1989;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 『日本窒素事業概要』, 1940.  
12) 趙璣濬, 『全訂版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大旺社, 1982.



〈표 2〉 『年刊朝鮮』 자본계열별 구성비와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42년판 자본계열별 납입자본금과 구성비

(단위: %, 억원)

			내지 자본계열	선내 주요 자본계열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	
『年刊朝鮮 第1回 昭和17年版, 朝鮮産業の共榮圈參加體制』		구성비	74.0	18.0	8.0	
『조선은행회사조합 요록』 1942년판	모든 업종	본점회사 만	구성비	42.9	25.6	31.5
			금액	8.9	5.3	6.5
		본점회사와 지점회사	구성비	45.2	13.4	41.4
			금액	19.2	5.7	17.6
	상업, 금융업, 기타를 제외한 업종의 회사	본점회사 만	구성비	52.9	22.7	24.4
			금액	8.7	3.8	4.0
		본점회사와 지점회사	구성비	57.7	15.8	26.4
			금액	15.2	4.2	7.0

출전: 東洋經濟新報社, 『年刊朝鮮 第1會 昭和17年版, 朝鮮産業の共榮圈參加體制』, 1942, 26면;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42년판.

『年刊朝鮮』에는 내지 재벌 및 산업자본과 선내 주요 산업자본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만,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구성비만 제시되어 있는데, 내지 재벌 및 산업자본이 74%, 선내 주요 산업자본이 18%,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가 8%이다. 『年刊朝鮮』의 조사는 산업자본을 대상으로 한 것인 반면,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은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 등장하는 비산업자본도 모두 『年刊朝鮮』의 자본계열 분류에 따라 분류하였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年刊朝鮮』의 내지 재벌 및 산업자본은 내지 자본계열로, 『年刊朝鮮』의 선내 주요 산업자본은 선내 주요 자본계열로 표현한다.

『年刊朝鮮』과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으로부터 계산된 자본계열별 구성비를 바로 비교할 수는 없다. 『年刊朝鮮』은, 내지 자본계열이 조선에 본점회사나 지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투자한 경우에도 그 자본액을 조사하여 포함시켰지만, 이것은 『조선은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상의 내지 자본계열의 구성비가 『年刊朝鮮』보다 더 적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선내 주요 자본계열의 경우, 내지 자본계열과는 달리 그와 같은 문제가 거의 없다.

『年刊朝鮮』의 선내 주요 자본계열과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를 비교하여 보면, 선내 주요 자본계열은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의 2.25배에 해당하지만,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 의하면, 모든 업종에 대한 것이든 상업, 금융업, 기타를 제외한 업종의 것이든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의 납입자본금이 선내 주요 자본계열보다 더 크다. 모든 업종 이외에 상업, 금융업, 기타를 제외한 업종에 대한 값을 제시한 것은 『年刊朝鮮』이 포괄하는 업종 범위와 맞추기 위함이다. 『年刊朝鮮』은 방의석계를 선내 주요 자본계열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방의석계를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가 아니라 선내 주요 자본계열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年刊朝鮮』보다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의 비율이 더 낮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年刊朝鮮』에 수록된 내지 자본계열과 선내 주요 자본계열에 대한 조사는 충실하지만,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의 전체 규모는 과소하게 추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식민지 조선의 자본형성에서 조선 내에서 형성된 자본의 비율은 『年刊朝鮮』에서 제시된 것보다 더 컸다고 볼 수 있으며, 『年刊朝鮮』의 집계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年刊朝鮮』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 Ⅲ. 자본계열별 납입자본금의 추이와 구성

본 논문에서는 앞서 제시한 자본계열별 회사목록을 기초로 하여,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 수록된 조선 본점회사의 납입자본금을 자본계열별로 집계하였는데, 본 절에서는 이렇게 얻어진 자본계열별 납입자본금의 추이와 구성을 살펴본다.

#### 1. 전체 구성의 추이

조선총독부는 1910년 12월 29일 제령 제13호로 회사령을 제정하여, 조선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조선 외에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에서 사업을 하려면 조선총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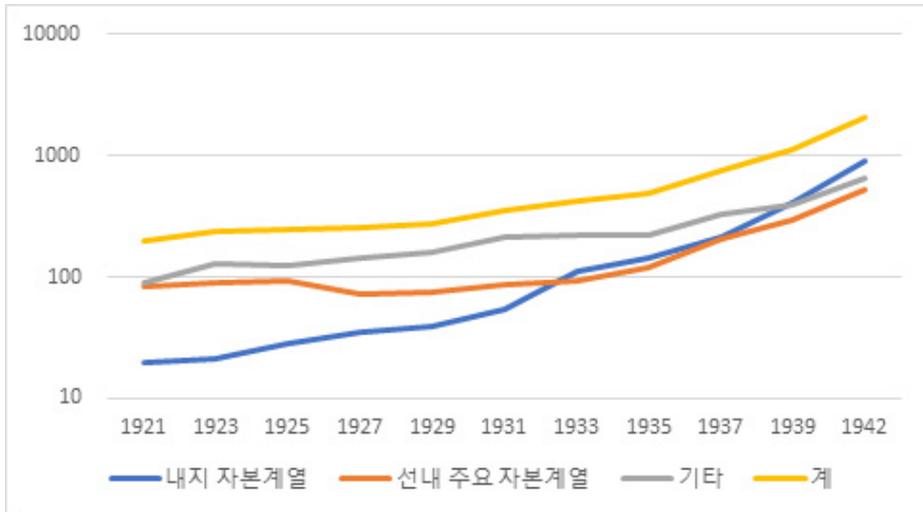
허가를 받도록 했다. 회사령은 1920년 4월 1일에 폐지되어 회사의 설립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1910년대 회사령 하의 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는데, 1921년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은 1910년대 회사 설립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보여준다.

1921년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 수록된 회사의 실태를 살펴본 후, 1921년에서 1942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1921년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 수록된 조선 본점회사의 납입자본금 총액은 1억 9476만 원이었다. 이중 내지 자본계열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1990만원, 선내 주요 자본계열의 납입자본금은 8424만원,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의 납입자본금은 9061만원이었다. 내지 자본계열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비중은 10.2%에 불과하였다.<sup>13)</sup> 선내 주요 자본계열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비중은 43.3%이고,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의 납입자본금의 비중은 46.5%이어서, 선내 주요 자본계열에 포함된 회사보다 그렇지 않은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더 많았다. 이후 소개할 방법에 따라 회사를 민족별로 구분하면, 조선인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2817만 원으로 전체 납입자본금의 14.5%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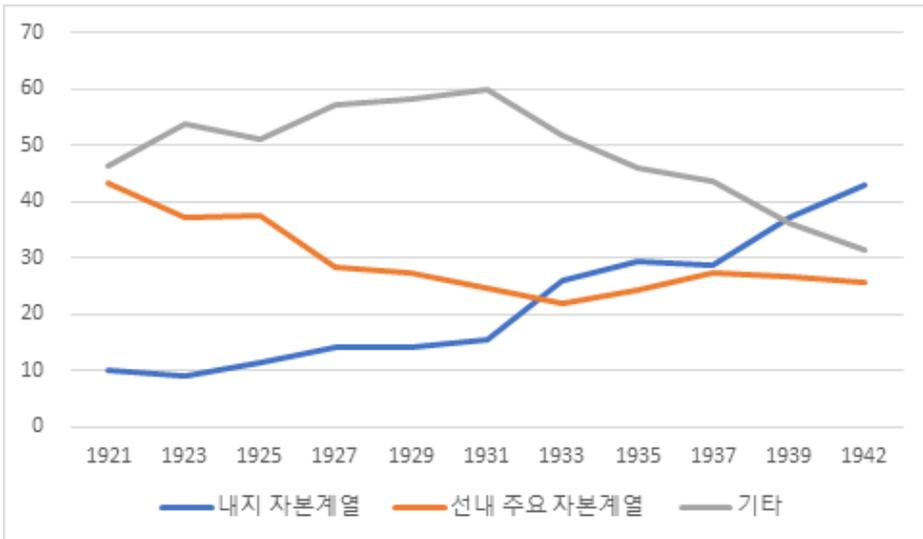
이제 1921년부터 1942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본다.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은 1921년 1억 9476만 원에서 1942년 20억 6535만 원으로 11배 증가하였다. 이중 내지 자본계열은 1921년 1990만원에서 1942년 8억 8610만 원으로 45배 증가하여,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여, 그 구성비는 1921년 10.2%에서 1942년 42.9%로 증가하였다. 반면, 선내 주요 자본계열은 1921년 8424만 원에서 1942년 5억 6860만 원으로 6배 증가하여,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여, 그 구성비는 1921년 43.3%에서 1942년 25.6%로 줄어들었다.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는 1921년 9061만 원에서 1942년 6억 5140만 원으로 7배 증가하여, 선내 주요 자본계열의 증가율을 다소 앞섰지만,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여, 그 구성비는 1921년 46.5%에서 1942년 31.5%로 감소하였다.

13) 본 논문은 조선 본점회사의 납입자본금을 분석하는데, 내지 자본의 경우, 지점회사로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본점이나 지점을 두지 않고, 공장이나 사업체만을 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선 본점회사의 납입자본금에 한정하여 고찰하는 경우, 내지 자본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식민지 조선에 본점을 둔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자본계열별·업종별 추이와 구성



〈그림 1〉 조선 본점회사의 납입자본금 (1): 『年刊朝鮮』의 분류 (단위: 백만 원)



〈그림 2〉 조선 본점회사의 자본계열별 납입자본금 구성(1): 『年刊朝鮮』의 분류 (단위: %)

이상은 전기간을 대상으로 고찰한 것인데, 자본계열별 납입자본금의 성장 추세는 시기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내지 자본계열의 비중은 1921년부터 1942년까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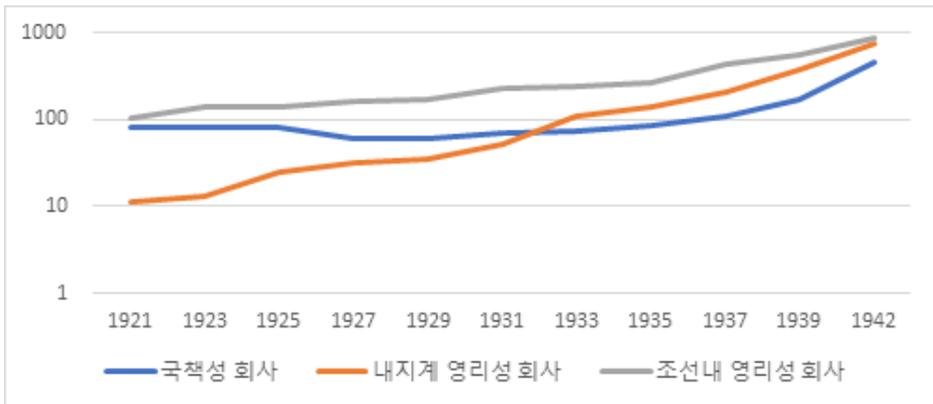
적으로 상승하지만, 1931년 이전보다 그 이후에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 이것은 193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자본 유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기존의 연구사와 부합한다. 자본계열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의 추이를 보면, 1921년부터 1931년까지는 비중이 늘어났지만, 1931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21년부터 1942년까지 11 시점의 값들을 모두 제시하지만, 자본계열별 납입자본금의 구성 추이는 1931년 이전과 이후에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하에서는 1921~1931년 동안(이후 1기로 약칭)과 1931~1942년 동안(이후 2기로 약칭)으로 나누어서 두 기간의 변화값만을 살펴본다.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은 1기에 연평균 6.1%로 성장했는데, 2기에는 연평균 17.5%로 성장하여, 2기의 성장률이 더 빨랐다. 1기에 내지 자본계열의 연평균 성장률은 10.7%로 가장 높았고, 선내 주요 자본계열은 0.2%로 거의 성장하지 못했지만,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는 8.8%로 성장하였다. 2기에는 모두 1기보다 성장률이 더 높아졌는데, 내지 자본계열의 연평균 성장률은 28.8%에 이르렀다. 선내 주요 자본계열의 연평균 성장률도 17.9%로 높아, 1기와 대조된다.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의 연평균 성장률도 10.8%로 1기보다 2.1%포인트 더 높아졌지만, 선내 주요 자본계열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기에 비계열화된 회사의 성장률이 계열화된 회사들의 성장률보다 더 낮기는 하였지만, 1기보다 성장률이 더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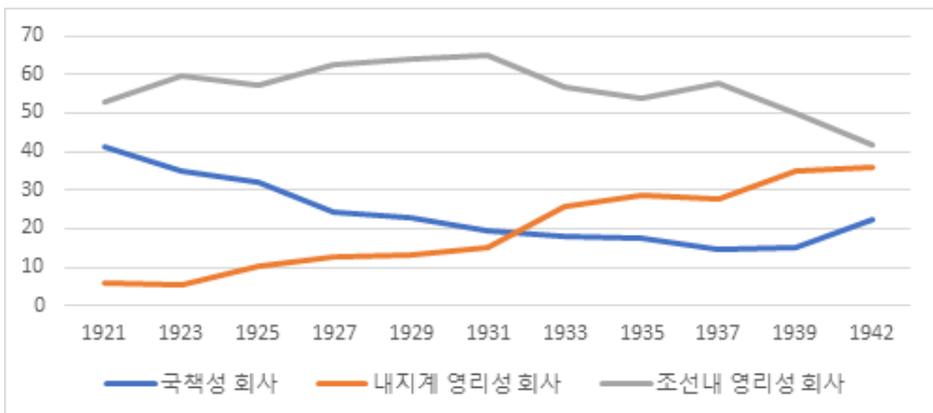
앞에서는 『年刊朝鮮』의 대분류에 따라 그 성장 추세 및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年刊朝鮮』의 세분류를 재집계하면, 국책성 회사와 비국책성 회사의 추이도 파악할 수 있다. 무엇을 국책성 회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바가 많지만, 여기에는 특수회사, 동척계, 식은계를 국책성 회사로 보았다. 이를 제외한 회사는 내지계 영리성 회사와 조선내 영리성 회사로 구분된다. 내지계 영리성 회사는 내지 자본계열에서 동척계를 제외한 것이고, 조선내 영리성 회사는 선내 주요 자본계열에서 특수회사와 식은계를 뺀 것에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를 합한 것이다.

국책성 회사, 내지계 영리성 회사, 조선내 영리성 회사로 분류하여, 각 분류에 해당하는 조선 본점회사의 납입자본금의 추세를 비교해 보면, 1921년에서 1942년 동안 국책성 회사는 5.7배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하였고, 내지계 영리성 회사는 66.9배 증가하여 가장 높았고, 조선내 영리성 회사는 8.3배 증가하였다. 이 분류체계에서도 1기(1921~1931)와 2기(1931~1942)는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 1기에 국책성 회사의 연평균 성장률은 -1.5%였는데, 2기에는 18.8%로 높아졌다. 내지계 영리성 회사의

연평균 성장률은 1기의 16.9%에서 2기의 27.1%로 증가하여,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 성장을 주도했다. 조선내 영리성 회사의 연평균 성장률은 1기의 8.3%에서 2기의 12.8%로 증가하였다. 2기에는 국책성 회사와 내지계 영리성 회사의 성장률이 조선내 영리성 회사의 성장률보다 더 커졌지만, 조선내 영리성 회사의 성장률도 2기가 1기보다 더 커서, 국책성 회사의 발전이나 내지계 영리성 회사의 조선 진출이 조선내 영리성 회사의 성장을 억압했다기보다는 성장의 기반을 확장시켰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림 3〉 조선 본점회사의 납입자본금 (2): 국책성 여부에 따른 재분류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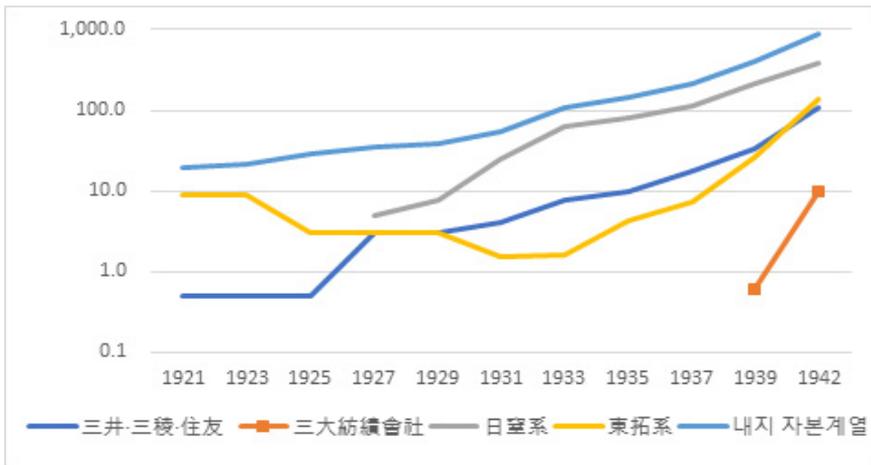
〈그림 4〉 조선 본점회사의 자본계열별 납입자본금 구성 (2): 국책성 여부에 따른 재분류 (단위: %)

## 2. 내지 자본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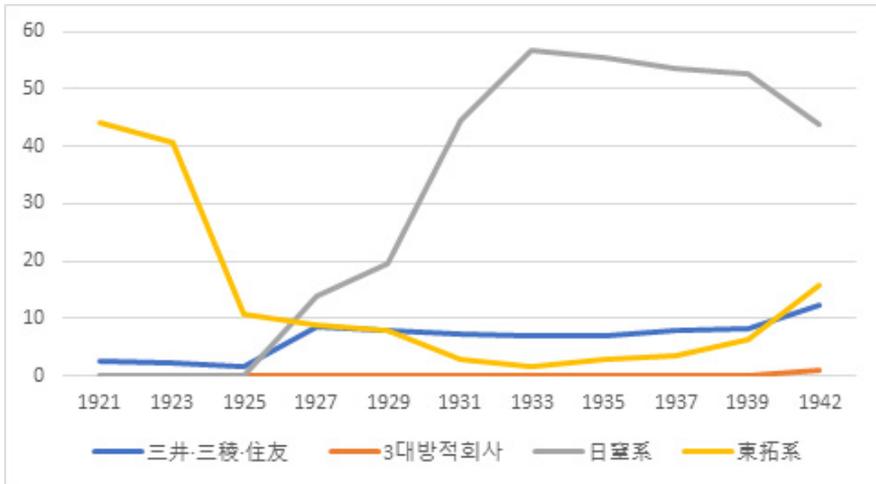
내지 자본계열의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은 1기와 2기 모두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이중 동척계는 상이한 추세를 보여준다. 1기에는 감소하였지만, 2기에 성장하여, 1942년에는 1921년 수준을 능가하게 되었다. 동척은 1910년대 후반에 국책성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 지주회사로 변신하였는데, 1920년대 초반의 전후 불황과 1920년대 후반의 昭和 금융공황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동척은 1930년대 후반에 다시 사업 지주회사로 적극적인 활동을 재개하였는데, 동척계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의 추이는 이를 잘 보여준다.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으로 보는 한 1920년대 전반에는 일본 3대 재벌이 동척계의 뒤를 이었지만, 일질계인 조선수전(주)이 1926년 1월에 설립되자, 1927년 일질계가 일본 3대 재벌을 능가하고, 이후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일본 3대 재벌도 커져, 1927년에는 동척계를 능가하게 되었지만, 1942년에는 다시 동척계가 일본 3대 재벌을 능가하게 되었다.

내지 자본계열에서 일질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21년 0%에서 1927년에는 14%로 증가하고, 1933년에 57%로 정점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여, 1942년에는 44%가 되었다. 동척계의 비중을 보면, 1921년에 44%를 차지하였는데, 1933년에는 1%로 떨어지고,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42년에는 16%가 되었다.



〈그림 5〉 내지 자본계열의 조선 본점회사의 납입자본금 (단위: 백만 원)



〈그림 6〉 내지 자본계열의 조선 본점회사의 자본계열별 납입자본금 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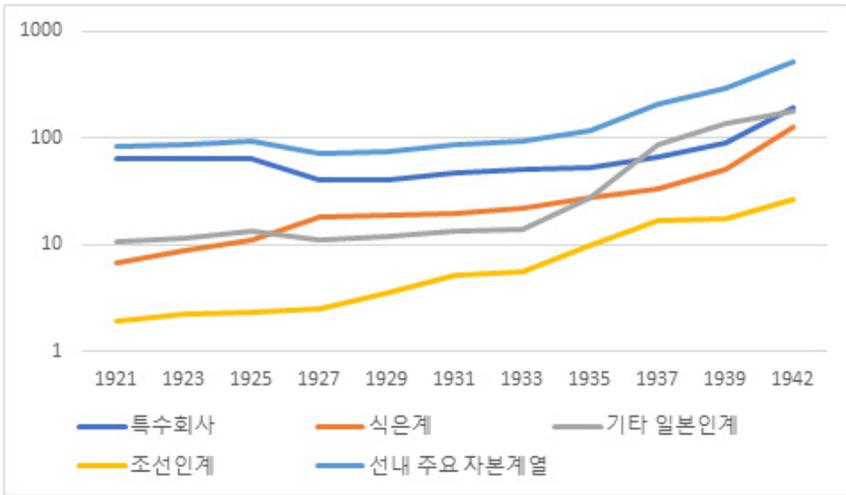
### 3. 선내 주요 자본계열

선내 주요 자본계열의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의 추이를 보면, 1921년에서 1942년 동안 식은계는 19.3배 증가해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 그 다음이 기타 일본인계로 17.1배 증가하였고, 조선인계는 13.5배로 그 뒤를 이었으며, 특수회사는 2.9배로 증가하여,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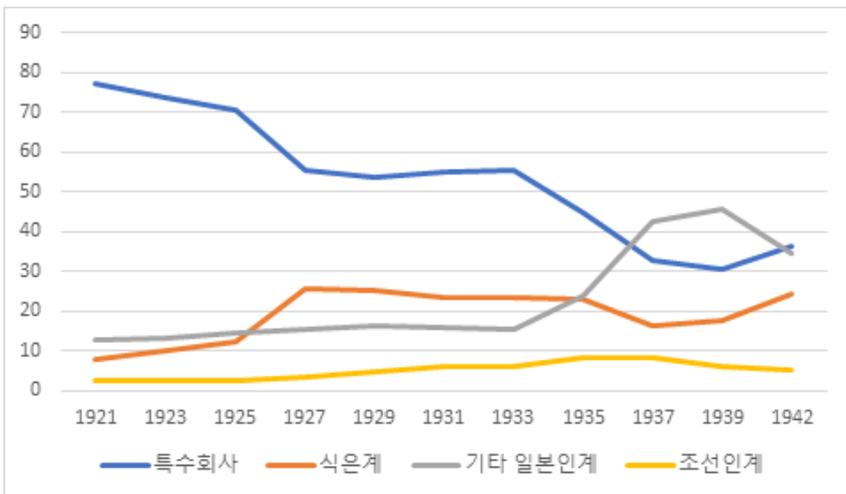
기간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1기에는 식은계가 11.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조선인계로 10%였으며, 기타 일본인계는 2.5%로 저조하였고, 특수회사는 -3.1%여서 감소하고 있었다. 2기에는 기타 일본인계가 26.6%로 가장 빨랐고, 그 다음이 식은계로 18.4%였으며, 조선인계는 16.2%여서, 기타 일본인계보다는 낮았지만, 1기보다는 더 높은 성장율을 보여준다. 특수회사는 1기에는 줄어 들었지만, 2기에는 연평균 13.5%의 성장을 이루었다.

선내 주요 자본계열에서 각 주요 자본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21년에는 특수회사가 77%를 차지하였는데, 1942년에는 36%로 감소하였다. 반면, 식은계와 기타 일본인계의 비중이 늘었는데, 식은계는 1921년 8%에서 1942년 24%로 늘었고, 기타 일본인계는 1921년 13%에서 1942년 34%로 늘었다. 시기별로 증가 추세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식은계는 1927년에 25.5%를 차지한 후 감소하여 1937년에

는 16.3%가 되었고, 이후 다시 증가하여 1942년에는 24.4%가 되었다. 반면 기타 일본인계는 1939년까지 증가하여 45.8%가 되었고, 이후 감소하여 1942년에 34.3%가 되었다. 조선인계의 비중은 1921년 2.3%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1935년에는 8.5%를 차지했지만 이후 감소하여, 1942년에는 5%가 되었다.



〈그림 7〉 선내 주요 자본계열의 조선 본점회사의 납입자본금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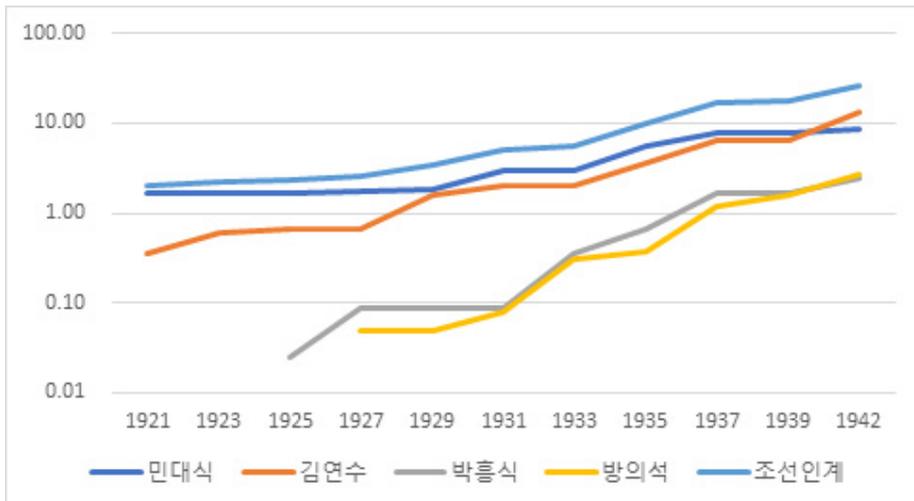


〈그림 8〉 선내 주요 자본계열의 조선 본점회사의 자본계열별 납입자본금 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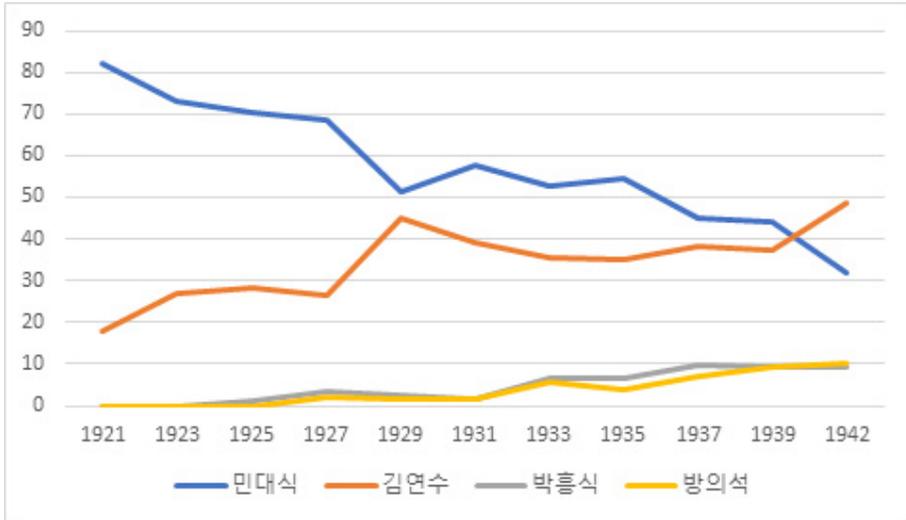
#### 4. 조선인 4대 재벌과 조선인 회사

조선인 4대 재벌의 납입자본금의 성장 추세를 보면, 1921년에 가장 큰 규모를 보였던 민대식계의 성장률이 가장 낮았다. 1921년에서 1942년 동안 조선인계의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은 13.5배 늘었음에 반해, 민대식계는 5.2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연수계가 민대식계를 잇는 후발 주자였으며, 박흥식계와 방의석계는 김연수계를 잇는 후발 주자였는데, 김연수계는 1921년에서 1942년 동안 37.1배 늘었다. 2기에 한정해서 보면, 민대식계는 2.9배, 김연수계는 6.5배 늘었음에 비해, 박흥식계는 28.5배, 방의석계는 33.9배 늘었다.

조선인 4대 재벌의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에서 각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민대식계는 1921년 82%에서 1942년 32%로 추세적으로 감소한 반면, 김연수계는 1920년 동안에는 높은 성장세를 보여, 1921년 18%에서 1929년 45%에 이르지만, 이후 횡보하다가 1940년대 들어 다시 확장되어 1942년에는 49%가 되었다. 박흥식계는 1931년에는 2%였는데, 1937년에는 10%로 늘어나고 이후 약간 감소하여 1942년에는 9%에 머무르고 있다. 방의석계는 1931년 2%였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1942년에는 10%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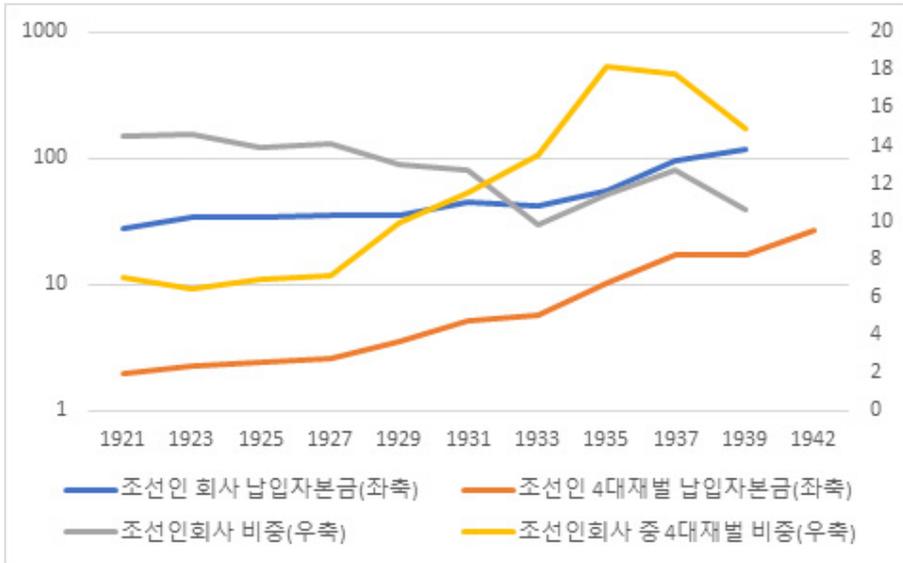
〈그림 9〉 조선인 4대 재벌의 조선 본점회사의 납입자본금 추이 (단위: 백만 원)



〈그림 10〉 조선인 4대 재벌의 조선 본점회사의 재벌별 납입자본금 구성 (단위: %)

조선 본점회사를 민족별로 구분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는 대주주, 중역, 대표가 기재되어 있다. 회사의 소유주는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의 구성에 의거하여 회사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는 일부 큰 규모의 회사에 한해 대주주를 기재하고 있어서, 주주 구성을 기준으로 민족별 회사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반면, 각 회사에는 대부분 대표를 알 수 있으며, 여러 자본계열이 출자하였을 때 어느 쪽이 경영권을 갖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를 중심으로 회사를 분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회사의 민족별 구분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회사의 대표가 조선인인 경우 조선인 회사로 분류하였고, 회사 대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중역이 조선인인 경우 조선인 회사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민족별로 분류하면, 조선인 조선 본점회사의 납입자본금은 1921년 2817만 원에서 1939년 1억 1643만 원으로 4배 증가했다. 조선인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의 증가세가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의 증가세에는 미치지 못하여,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21년 14%에서 1939년에는 11%로 줄었다. 동일한 시기 조선인 4대 재벌의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은 197만 5천원에서 1738만 5천원으로 9배 늘어, 조선인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에서 조선인 4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1년 7%에서 1939년 15%로 증가했다.



〈그림 11〉 조선인 본점회사와 조선인 4대재벌의 납입자본금과 그 비중 (단위: 백만 원, %)

기존 연구에서는 내지 자본과 조선내 자본을 구분하고, 조선내 자본을 다시 조선인 자본과 일본인 자본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구분의 체계에 맞추어 조선 본점회사의 납입자본금의 1921년 이후 변화 추이를 고찰하여 둔다. 1921년 내지 자본계열의 비중은 10.22%에 불과하였지만, 1920년대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1931년에는 15.61%를 차지하였고, 1930년대에는 더욱 빠르게 성장하여, 1942년에는 42.9%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42년에도 내지 자본계열의 비중은 50%를 밑돌았다. 식민지기 내지 자본계열의 성장은 매우 빨랐지만, 1942년에도 조선에 성장기반의 원천을 가진 회사의 비중이 57.1%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조선에 성장기반의 원천을 가진 회사에 대한 연구가 더 진전될 필요가 있다.

조선내 자본의 납입자본금의 민족별 구성의 추이를 보면, 1921년에 조선인 자본의 비중은 30%였으며, 1937년에는 33.6%로 증가하였지만, 1939년에는 31.7%로 1937년보다는 줄었지만 1921년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서, 1921년부터 1939년까지를 통관

하여 보면 조선인 자본의 비중이 감소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식민지기 회사 자본의 성장에는 내지 자본의 유입이 크게 기여하였지만, 조선내 자본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조선내 자본의 성장에는 조선인 자본의 성장도 기여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내 자본의 비중은 1921년 89.8%에서, 이후 감소하여, 1942년에는 57.1%가 되었다. 조선내 자본은 특수회사와 식은계로 분류되는 국책성 회사와 그에 포함되지 않는 비국책성 회사로 나눌 수 있는데, 조선내 자본 중 국책성 회사의 비중은 1921년에는 4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1937년에는 19%로 줄어들었고, 이후 약간 반등하였지만, 1942년에도 27.1%에 머물렀다. 반면 비국책성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크게 성장하였다. 1921년 비국책성 자본 중에서 일본인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2.7%였으며, 이후 약간 증가하여, 1939년에는 78.7%가 되었다. 식민지 초기에는 조선내 자본으로 특수회사나 식은계와 같은 국책성 회사가 발전하였지만, 조선에 정착한 일본인과 조선의 근대적 변화에 탑승하는 조선인들이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출현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회사를 만들어 나갔다. 조선내에 기반을 두고 성장한 회사 중의 일부는 계열을 구성할 만큼 성장하기도 하였지만, 계열화된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비중은 1935년까지는 15%를 하회하였으며, 계열화가 더 진전된 1937년 이후에도 20%를 상회할 뿐, 30%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즉 조선에서는 조선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업가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었다.

국책성 회사는 조선내 자본으로서 특수회사와 식은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지 자본으로서 동척계도 있었다. 특수회사와 식은계에 동척계까지 합한 국책성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조선 본점회사 전체 납입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21년 41.3%에서 1937년 14.5%로 감소하였지만, 이후 약간 늘어나 1942년에는 22.3%가 되었다. 조선은 국책성 회사가 아니라 영리성 회사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이것은 국책성 회사를 중심으로 발전한 만주국과 대조를 이룬다.<sup>14)</sup>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만주국에서의 국책성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비중을 제시하여 둔다. 1943년 3월말 만주국에서 국책성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비중은 특수회사의 비중 44.9%와 준특수회사의 비중 13.6%를 더한 58.5%였다. 조선의 경우, 특수회사, 준특수회사에

14) 20세기 전반 일본 제국 및 식민지 경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국적 분업권 속에 만주국도 포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박이택, 「20세기 전반 서울, 도쿄, 다롄의 임금-이중구조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사학』 45(3), 경제사학회, 2021.

동척계와 식은계를 포함한 것을 국책성 회사로 보았지만, 그 비중은 만주에서의 특수 회사 및 준특수회사의 비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내지 자본계열의 회사와 국책성 회사를 제외한 조선내 영리성 회사의 성장률은 1921~1931년 동안에는 8.3% 였으나, 1931~1942년 동안에는 12.8%로 증가하였다. 국책성 회사의 발전이나 내지 자본계열의 조선 진출은 조선내 영리성 회사의 성장을 억압하였다기보다는 성장의 기반을 확장하고 있었다. 조선내 영리성 회사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었는지 보다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 Ⅶ. 자본계열별 업종별 납입자본금의 추이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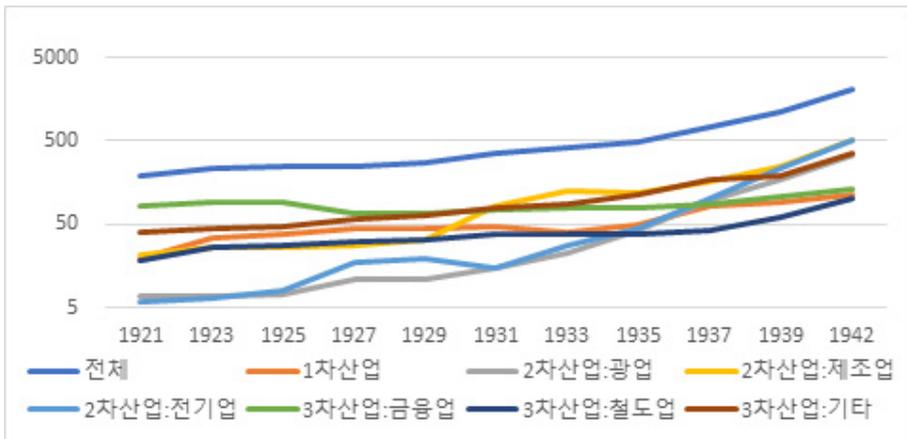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은 회사의 업종을 15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7종으로 통합하였다. 1) 농림업, 수산업 → 1차산업 2) 광업 → 2차산업: 광업 3) 양조업, 인쇄업, 정미업, 제조공업 → 2차산업: 제조업 4) 전기 → 2차산업: 전기업 5) 금융신탁, 보험, 은행 → 3차산업: 금융업, 6) 철도 → 3차산업: 철도업 7) 운수창고, 상업, 기타 → 3차산업: 기타. 제시한 도표에서는 분류명을 모두 표기하였지만, 이하 서술에서는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업, 금융업, 철도업, 기타로 표현한다. 이하에서는 7종으로 통합한 업종별 납입자본금의 자본계열별 추이 및 구성에 대해 고찰한다.

### 1. 전체 구성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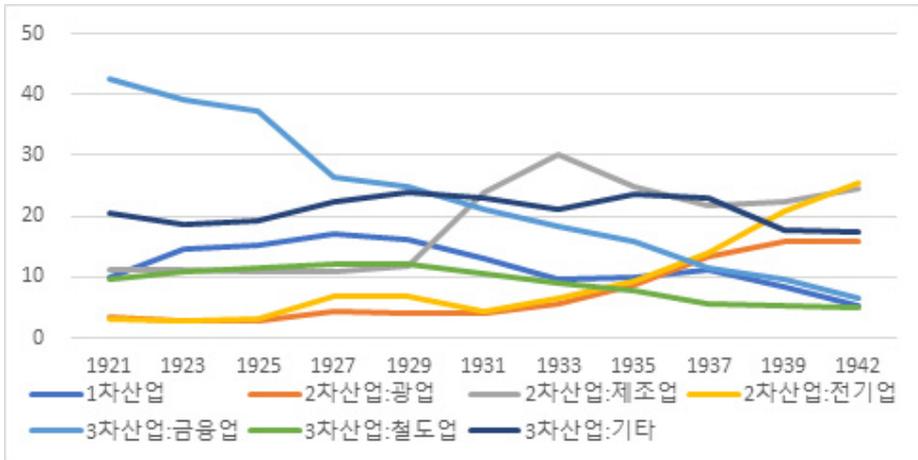
1921년부터 1942년 동안 조선 본점회사의 납입자본금은 10.6배 늘어났는데, 동 기간 동안 전기업은 90.4배 늘어나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였고, 그 다음은 광업으로 47.7배 늘어났고, 제조업은 23.7배 증가하였다. 이상이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업종들이다. 기타는 9.0배, 농림수산업은 5.7배, 철도업은 5.4배, 금융업은 1.6배 증가했다. 일본 제국에서의 회사의 발전은 은행업과 운수 및 상업이 선도적으로 발전하고, 이를 뒤이어, 광업이나 제조업이 발전하였는데, 이와 같은 패턴이 조선에서도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의 업종별 구성을 보면, 1921년에 금융업의 비중이 42.5%였지만,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1942년에는 6.4%가 되었다. 기타의 비중은 1921년 20.4%에서 1942년 17.3%로 감소하였으며, 농림수산업의 비중도 1921년 9.9%에서 1942년 5.4%로 감소하였으며, 철도업의 비중도 1921년 9.6%에서 1942년 4.9%로 감소하였다. 반면, 전기업의 비중은 1921년 3.0%에서 1942년에는 25.4%로 늘었고, 제조업의 비중은 1921년 11%에서 1942년 24.6%로 증가하였고, 광업의 비중은 1921년 3.6%에서 1942년 16%로 증가하였다.

업종별 성장 추세는 시기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921년과 1931년을 비교하면, 조선 본점회사의 납입자본금은 1.8배 증가했는데, 제조업의 경우 3.9배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전기업이 2.6배, 농림수산업이 2.4배, 광업이 2.1배, 철도업과 기타가 2.0배였다. 반면 금융업은 昭和 금융공황의 영향을 받아 오히려 줄어들어 0.9배였다. 1931년과 1941년을 비교하면, 전기업이 34.9배로 가장 크게 늘었고, 광업이 22.6배, 제조업은 6.1배로,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의 증가배율 5.9배를 상회했다. 기타는 4.4배, 철도업은 2.7배, 농림수산업은 2.4배, 금융업은 1.8배로,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 증가배율을 하회했다.



〈그림 12〉 조선 본점회사의 업종별 납입자본금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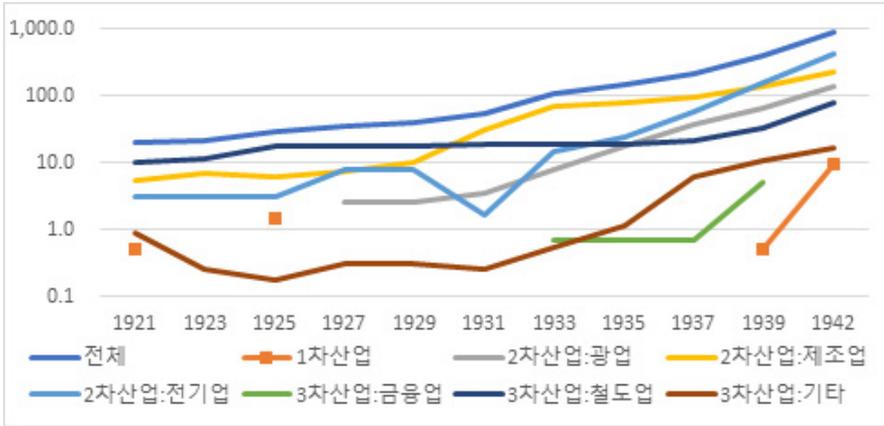


〈그림 13〉 조선 본점회사의 납입자본금의 업종별 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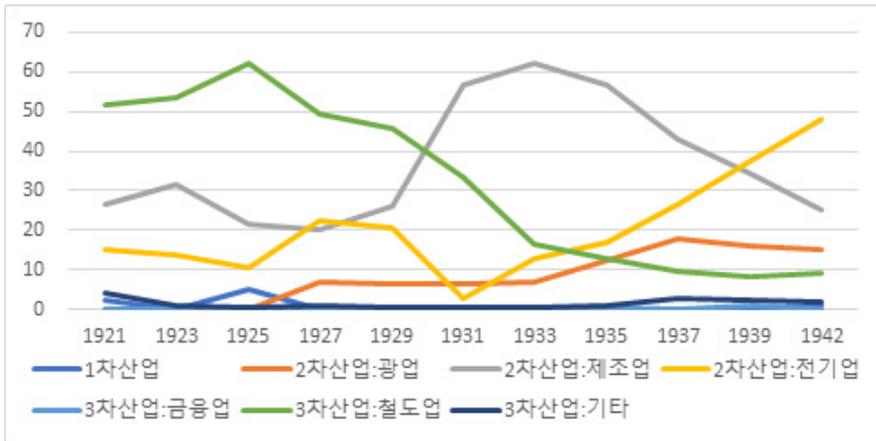
## 2. 내지 자본계열

자본계열별로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의 업종별 구성은 큰 차이가 있었다. 내지 자본계열의 경우, 1942년에 전기업이 4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제조업은 25.1%, 광업은 15.1%, 철도업은 9.0%를 차지하였다. 내지 자본계열은 1921년에서 1942년 동안 44.5배 늘었는데, 이중 광업과 141배 증가한 전기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증가배율은 모두 이보다 낮았다. 광업의 경우 1921년의 납입자본금이 0이었기 때문에, 증가율을 계산할 수 없지만, 광업의 성장이 증가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제조업은 42.1배, 기타는 19.5배, 농림수산업은 19배 증가하여, 그 증가율이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기업, 광업에는 크게 뒤쳐졌다.

내지 자본계열의 경우, 광업, 제조업, 전기업, 철도업을 합하면, 전체의 90%를 넘는데, 1931년에는 그 비중이 99.5%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 네 업종의 추이를 보면, 1920년대에는 철도업이 46~66%를, 제조업이 20~31%를, 전기업은 11~22%를, 광업이 0~7%를 차지하였다. 1930년대 전반에는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였으며, 1930년대 후반에는 전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광업은 1930년대 초까지는 10%를 밑돌았지만, 1930년대 후반에는 15%를 상회하게 되었다.



〈그림 14〉 내지 자본계열의 조선 본점회사의 업종별 납입자본금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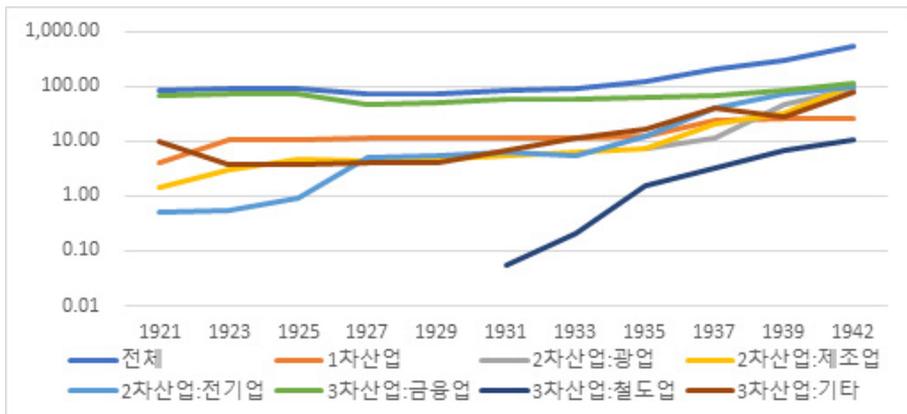
〈그림 15〉 내지 자본계열의 조선 본점회사의 납입자본금의 업종별 구성 (단위: %)

### 3. 선내 주요 자본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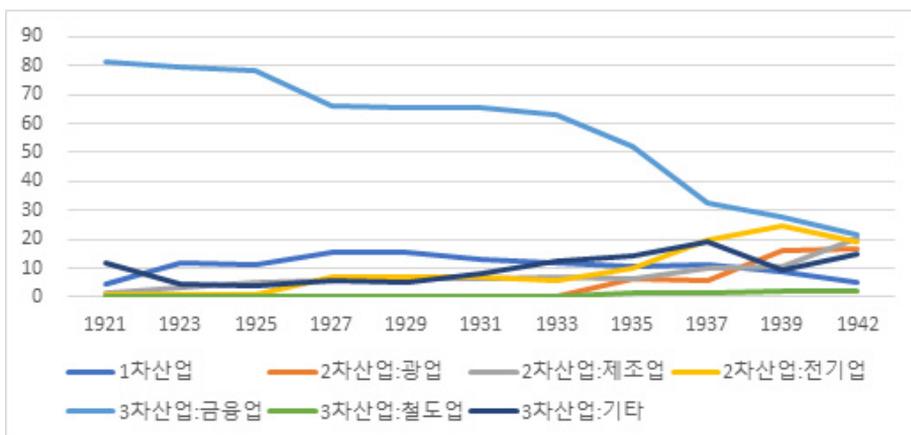
선내 주요 자본계열의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의 업종별 구성을 보면, 1921년에는 금융업이 주였으며, 기타와 농림수산업이 그 뒤를 따랐고, 나머지는 매우 미미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1942년에는 금융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대신 제조업, 전기업 및 광업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식민지 조선에 본점을 둔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자본계열별·업종별 추이와 구성

업종별 구성비의 큰 변동은 업종별로 성장률에 큰 차이가 있었음을 함의한다. 1921년과 1942년을 비교하면, 금융업은 1.7배 증가한 반면, 전기업은 203.3배, 제조업은 73.0배 증가하였고, 광업은 1921년에 0이어서 증가율을 계산할 수 없다. 구성비의 추이를 보면, 금융업은 1921년 81.2%에서 1942년 21.0%로 감소하였고, 전기업은 0.6%에서 19.0%로, 제조업은 1.8%에서 20.4%로, 광업은 0%에서 16.8%로 증가했다. 기타도 11.6%에서 15.1%로 소폭 증가하였다. 농림수산업은 4.8%에서 4.9%로 큰 차이가 없는데, 1920년대의 성장은 1930년대의 감소로 거의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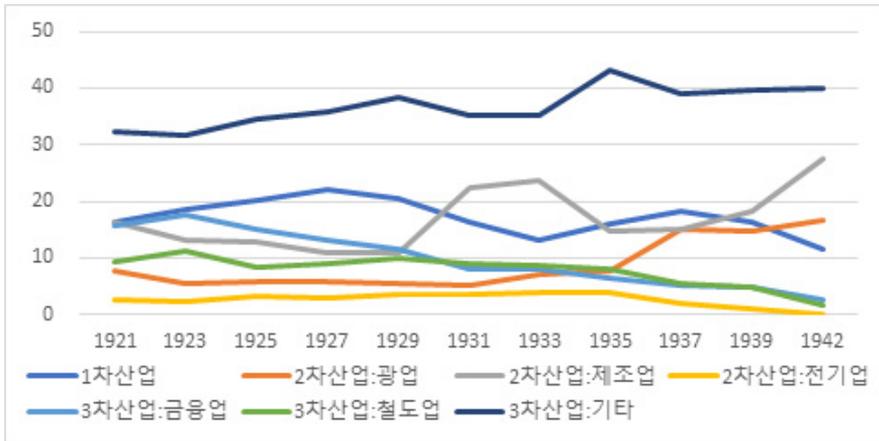
〈그림 16〉 선내 주요 자본계열의 조선 본점회사의 업종별 납입자본금 (단위: 백만 원)



〈그림 17〉 선내 주요 자본계열의 조선 본점회사의 납입자본금의 업종별 구성 (단위: %)



식민지 조선에 본점을 둔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자본계열별·업종별 추이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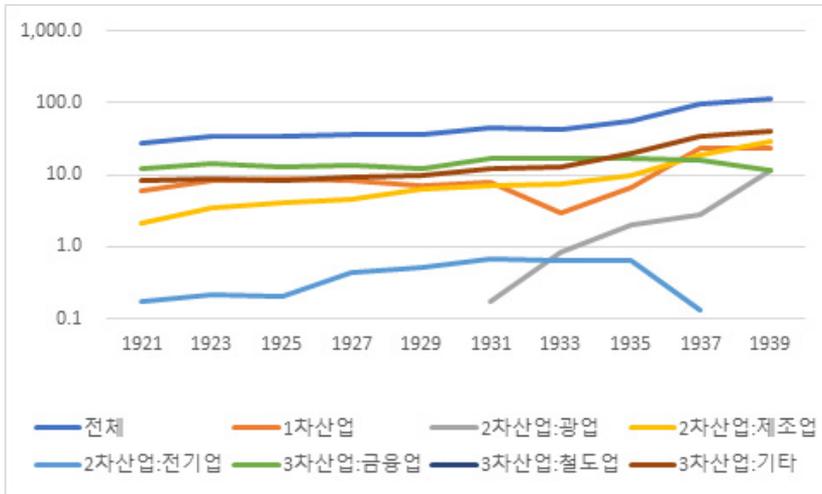


〈그림 19〉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의 납입자본금의 업종별 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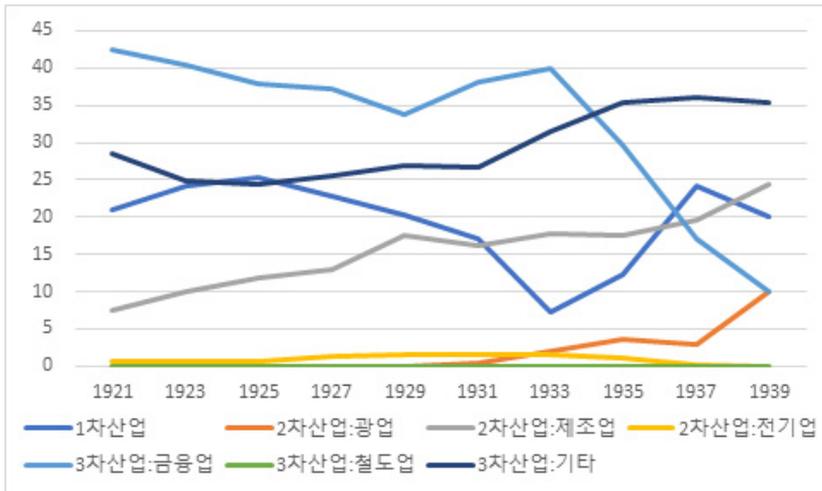
구성비를 보면, 기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1921년 32.1%에서 1942년 40.1%로 증가했다. 이외에 광업은 7.6%에서 16.5%로 증가했고, 제조업은 16.3%에서 27.5%로 증가했다. 반면, 농림수산업은 16.3%에서 11.6%로 감소했고, 철도업은 9.3%에서 1.6%로, 전기업은 2.6%에서 0.2%로, 금융업은 15.8%에서 2.6%로 감소했다.

### 5. 조선인 회사

마지막으로 조선인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업종별 구성에 대해 고찰해 둔다. 조선인 회사 중에도 이른바 조선인 4대 재벌로 불리는 계열화된 회사 그룹이 있었지만, 이 조선인 4대 재벌들도 전기업, 철도업, 중화학공업에는 진출하지 못하였다. 1920년대 초에는 금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후 거의 성장하지 못하여, 1942년에는 1921년보다 납입자본금이 더 적어졌다. 1921년에 1차산업의 비중이 상당한 수준이었지만, 성장률이 높지는 않았다. 1920년대와 1930년대 가장 빠르게 성장한 업종은 광업과 제조업이었다.



〈그림 20〉 조선인 회사의 업종별 납입자본금 (단위: 백만 원)



〈그림 21〉 조선인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업종별 구성 (단위: %)

구성비를 보면, 1921년에는 금융업이 42.5%로 가장 컸지만, 1939년에는 10%로 줄어들었다. 기타는 1921년에는 28.6%여서 금융업보다 적었지만, 1939년에는 5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두드러지게 성장한 것은 제조업과 광업인데, 제조업은 1921년 7.4%에서 1939년 24.5%로 성장하였고, 광업은 1921년 0%에

서 1939년에는 10.1%로 증가하였다.

1920년대 이래 조선 본점회사의 납입자본금의 업종별 구성은 크게 변하였는데, 금융업, 기타, 농림수산업, 철도업의 비중이 감소하였고, 전기업, 제조업, 광업의 비중이 늘었다. 그리고, 내지 자본계열, 선내 주요 자본계열,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가 경쟁력을 가지는 업종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내지 자본계열은 철도업, 제조업, 전기업에 강했으며, 선내 주요 자본계열은 금융업에 강했으며,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는 기타에 강했다. 각 자본계열별 성장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선 전체 업종별 구성의 변화, 각 자본계열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는 업종과 각 업종에서 각 자본계열의 경쟁력의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 V. 자본계열별 업종별 납입자본금에 대한 변이-할당분석

일본 본토에서 전개된 회사의 업종별 발전을 보면, 근대적인 산업이 발전하는 데 기반이 되는 은행업과 운수 및 상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이 선도적으로 발전하고, 이를 뒤이어, 광업, 전기업, 철도업, 제조업의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식민지 조선에서의 회사의 업종별 발전도 이와 같았다. 시기별로 업종의 성장력이 달랐는데, 성장하는 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업종에 속한 기업들보다 성장력이 더 높으므로, 기업의 성장을 분석할 때에는 그 기업이 속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기업의 성장에는 그 기업이 속한 업종의 성쇠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업종 내에서 그 기업이 가지는 경쟁력의 변화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 기업의 성장을 그 기업이 속한 업종의 성장에 귀속되는 부분과 그 기업의 경쟁력의 변화에 귀속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성장률의 차이가 업종 구성의 차이에 기인하는지, 동일 업종에서의 경쟁력의 변화에 기인하는지를 분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 변이-할당 분석이다.<sup>15)</sup> 변이-할당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항등식을 이용하여 자본계열의 납입자본금의 증가를 국가

---

15) 변이-할당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박이택,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광역권 인구이동: 변이-할당 분석(shift share analysis)으로부터의 접근」, 『아세아연구』 55(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2.

적 성장효과, 국가적 산업구조효과, 자본계열별 변이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begin{aligned} \Delta e_i^r &= (g(E_a^m) + (g(E_i^m) - g(E_a^m)) + (g(e_i^r) - g(E_i^m))) * e_i^r \\ &= g(E_a^m) * e_i^r + (g(E_i^m) - g(E_a^m)) * e_i^r + (g(e_i^r) - g(E_i^m)) * e_i^r \end{aligned}$$

단,  $\Delta e_i^r$ 는 r 자본계열에 있어 i업종 납입자본금( $e_i^r$ )의 증분,  $g(E_a^m)$ 는 조선 본점회사 전체 납입자본금( $E_a^m$ )의 증가율,  $g(E_i^m)$ 는 조선 본점회사 중 i업종 납입자본금( $E_i^m$ )의 증가율,  $g(e_i^r)$ 는 r 자본계열에 있어 i업종 납입자본금( $e_i^r$ )의 증가율임.

두번째 줄의 첫번째 항은 국가적 성장효과로, 그 자본계열의 특정 업종의 납입자본금이 조선 본점회사 전체의 납입자본금의 증가와 동일한 증가율로 성장했을 때의 증분이고, 두번째 항은 국가적 산업구조효과로, 조선 본점회사 i업종의 납입자본금의 증가율이 조선 본점회사 전체 납입자본금의 증가율과 다를 때 그 차이 즉 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발생한 증분이고, 세번째 항은 자본계열별 변이효과로, 특정 자본계열의 i업종의 납입자본금의 증가율이 조선 본점회사 i업종의 납입자본금의 증가율과 다를 때 그 차이 즉 그 자본계열이 그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화 또는 약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증분이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자본계열별 업종 구조 변화가 상당히 이질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양 시기를 나누어서,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한다. 1942년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의 경우, 창씨개명으로 사람의 이름 만으로는 민족별 구분을 엄밀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1942년에는 회사의 민족별 구분을 하지 않아, 민족별 정보가 없기 때문에, 1942년까지의 변화를 분석하는 변이-할당 분석에는 민족별 분석을 포함하지 않았다.

1921년과 1931년에 대해 변이-할당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 A에 제시되어 있다. 국가적 성장효과(A)는 전체 회사의 평균 성장률만큼 성장하였다면 달성되었을 납입자본금 증가분이고, 합계(B)는 실제 일어난 납입자본금의 증가분이어서, 국가적 성장효과와 실제 성장의 비율 즉 B/A는 평균적 성장보다 몇 배 더 성장하였는가를 보여준다. 국가적 성장효과와 실제 성장의 비율을 보면, 내지 자본계열은 63% 더 나은 성과를 보였으며,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는 39% 더 나은 성과를 보인 반면,

선내 주요 자본계열은 평균적인 성장에 크게 못 미쳤다. 더 나은 성과를 얻게 된 요인을 살펴보면, 내지 자본계열은 자본계열별 변이효과가 미미하여, 국가적 산업구조효과가 높은 성장을 보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는 국가적 산업구조효과가 성장을 야기하는 주요인이기는 하지만, 자본계열별 변이효과도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즉 내지 자본계열은 성장률이 높은 업종의 구성비가 압도적으로 컸지만, 각 업종에서 성장률은 전체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는 성장률이 높은 업종의 구성비가 다소 높기는 했지만, 내지 자본계열만큼 압도적이지는 않았다.

1931년과 1942년에 대해 변이-할당분석을 한 결과는 <표 3> B에 제시되어 있다. 선내 주요 자본계열도 1921~1931년과는 달리 평균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가 상대적인 저성장을 보였으며, 내지 자본계열이 상대적인 고성장을 보였다. 선내 주요 자본계열은 1921~1931년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산업구조효과는 음이었지만, 그것을 자본계열별 변이효과가 상쇄하여, 평균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반면,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는 국가적 산업구조효과와 자본계열별 변이효과가 모두 음이었고, 내지 자본계열은 모두 양이었다.

1921년과 1942년에 대해 변이-할당분석을 한 결과는 <표 3> C에 제시되어 있다. 내지 자본계열이 평균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선내 주요 자본계열과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는 평균 이하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선내 주요 자본계열은 국가적 산업구조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음의 값을 보였으며,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는 국가적 산업구조효과와 자본계열별 변이효과가 모두 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내 주요 자본계열보다는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표 3> 자본계열별 업종별 납입자본금에 대한 변이-할당 분석 (단위: 원, %)

A. 1921~1931

	내지 자본계열	선내 주요 자본계열	기타	계
국가적 성장효과(A)	21356475	48757223	85934891	156048589
국가적 산업구조효과	13481758	-37111565	23629807	0
자본계열별 변이효과	26767	-9672611	9645844	0
합계(B)	34865000	1973047	119210542	156048589
B/A*100	163	4	139	100

B. 1931~1942

	내지 자본계열	선내 주요 자본계열	기타	계
국가적 성장효과(A)	667651721	435752883	611142434	1714547039
국가적 산업구조효과	101359622	-49362996	-51996626	0
자본계열별 변이효과	62322032	55244058	-117566090	0
합계(B)	831333375	441633945	441579719	1714547039
B/A*100	125	101	72	100

C. 1921~1942

	내지 자본계열	선내 주요 자본계열	기타	계
국가적 성장효과(A)	749854773	506604373	614136482	1870595628
국가적 산업구조효과	88006720	-80789752	-7216967	0
자본계열별 변이효과	28336882	17792372	-46129254	0
합계(B)	866198375	443606992	560790261	1870595628
B/A*100	116	88	91	100

자본계열별 변이효과는 각 업종의 자본계열별 변이효과를 합산한 것으로서, 자본계열별 변이효과가 양이라고 해서 모든 업종에서 자본계열별 변이효과가 양인 것은 아니다. 각 자본계열이 어느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자본계열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본계열별 변이효과를 업종별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한다.

1921~1931년 동안의 자본계열별 변이효과는 <표 4> A에 제시되어 있다.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의 자본계열별 변이효과는 전체적으로는 양의 값인데, 업종별로 보면, 기타와 금융업, 철도업, 전기업에서는 양의 값을,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에서는 음의 값을 보였다. 선내 주요 자본계열은 농림수산업과 전기업, 철도업에서 양의 값을, 내지 자본계열의 경우 광업과 제조업에서 양의 값을 가졌다.

1931~1942년 동안의 자본계열별 변이효과는 <표 4> B에 제시되어 있다. 1921~1931년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는 모든 업종에서 음의 값을 보인 반면, 내지 자본계열은 금융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의 값을, 선내 주요 자본계열은 농림수산업과 전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양의 값을 보였다.

1921~1942년 동안의 자본계열별 변이효과는 <표 4> C에 제시되어 있다.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는 모든 업종에서 음의 값을 보인 반면, 내지 자본계열은 금융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의 값을 보였으며, 선내 주요 자본계열은 운수창고, 상업, 기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의 값을 보였다.

<표 4> 자본계열별 업종별 납입자본금에 대한 변이-할당 분석에서 자본계열별 변이효과  
(단위: 원)

A. 1921~1931

	내지 자본계열	선내 주요 자본계열	기타	계
1차산업	-704783	1075330	-370547	0
2차산업:광업	2253813	0	-2253813	0
2차산업:제조업	4349085	-194022	-4155063	0
2차산업:전기업	-3409644	2688244	721400	0
3차산업:금융업	0	-4666343	4666343	0
3차산업:철도업	-1454661	36703	1417959	0
3차산업:기타	-1007042	-8612524	9619566	0
전체	26767	-9672611	9645844	0

B. 1931~1942

	내지 자본계열	선내 주요 자본계열	기타	계
1차산업	5578303	-1143143	-4435160	0
2차산업:광업	4617155	7493369	-12110524	0
2차산업:제조업	9213363	21322066	-30535429	0
2차산업:전기업	20397872	-6282895	-14114976	0
3차산업:금융업	0	10006321	-10006321	0
3차산업:철도업	16645863	5545011	-22190874	0
3차산업:기타	5869477	18303329	-24172806	0
전체	62322032	55244058	-117566090	0

C. 1921~1942

	내지 자본계열	선내 주요 자본계열	기타	계
1차산업	1965566	722186	-2687752	0
2차산업:광업	5498137	3639198	-9137336	0
2차산업:제조업	7900519	5903880	-13804400	0
2차산업:전기업	3337719	1217468	-4555187	0
3차산업:금융업	0	4673649	-4673649	0
3차산업:철도업	7796857	3256944	-11053801	0
3차산업:기타	1838084	-1620954	-217130	0
전체	28336882	17792372	-46129254	0

## VI. 맺음말

본 논문은 1942년 초 식민지 조선의 산업자본의 자본계열을 보여주는 『年刊朝鮮』과 1921년부터 1942년까지 대체로 격년으로 남아 있는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의 정보를 통합하여, 『年刊朝鮮』의 자료적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조선 본점회사 납입 자본금의 자본계열별 업종별 구성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제2절에서는 『年刊朝鮮』의 정보를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과 통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수행한 작업을 소개하였으며, 그 결과 얻어진 조선 본점회사 및 지점회사의 자본계열별 목록을 제시하였다. 『年刊朝鮮』의 정보와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의 정보를 통합하여 검토한 결과, 『年刊朝鮮』은 내지 자본계열과 선내 주요 자본계열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실하게 조사하였지만,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의 규모는 과소하게 추계된 값을 사용하였다. 조선의 자본형성에서 조선 내에서 형성된 자본의 비율은 『年刊朝鮮』에서 제시된 것보다 더 컸다고 볼 수 있으므로, 『年刊朝鮮』의 집계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年刊朝鮮』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3절에서는 제2절에서 제시한 자본계열별 회사목록을 기초로 하여, 『조선은행회

사조함요록』에 수록된 조선 본점회사의 납입자본금을 자본계열별로 집계한 결과를 제시하고, 자본계열별 납입자본금의 추이와 구성을 고찰했다.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은 1921년에서 1942년 동안 11배 증가했는데, 동기간 동안 내지 자본계열은 45배 증가하였고, 선내 주요 자본계열은 6배 증가하였으며,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는 7배 증가하였다. 각 자본계열별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의 성장률은 1921년에서 1931년 동안과 1931년에서 1942년 동안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양 기간 모두 내지 자본계열의 성장률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의 성장률은 1921년에서 1931년 동안에는 선내 주요 자본계열보다 더 컸지만, 1931년에서 1942년 동안에는 역전되었다. 그러나, 1942년에도 내지 자본계열의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2.9%에 머물렀다. 1942년에도 조선에 성장기반의 원천을 가진 회사가 57.1%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이 회사들에 대한 연구가 더 진전될 필요가 있다. 조선의 회사들은 국책을 추구하는 회사도 있고,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도 있다. 통상 특수회사나 준특수회사를 국책성 회사로 파악하지만, 여기에서는 보다 폭넓게 동척계와 식은계도 국책성 회사에 포함시켰다. 국책성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1년 41.3%에서 1937년 14.5%로 감소하였고, 이후 약간 늘어 1942년에는 22.3%를 차지하였다. 조선에서 회사의 발전은 국책성 회사가 아니라 영리성 회사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국책성 회사 중심으로 발전한 만주국과 대조를 이룬다. 내지 자본계열의 회사와 국책성 회사를 제외한 조선내 영리성 회사의 성장률은 1921~1931년 동안에는 8.3%였으나, 1931~1942년 동안에는 12.8%로 증가하였다. 국책성 회사의 발전이나 내지 자본계열의 회사의 조선 진출은 조선내 영리성 회사의 성장을 억압하였다기보다는 성장의 기반을 확장하고 있었다.

제4절에서는 회사의 업종을 1) 1차산업 2) 2차산업: 광업 3) 2차산업: 제조업 4) 2차산업: 전기업 5) 3차산업: 금융업, 6) 3차산업: 철도업 7) 3차산업: 기타 등 7종으로 묶어 업종별 납입자본금의 자본계열별 추이 및 구성에 대해 고찰했다. 1920년대 이래 조선 본점회사의 납입자본금의 업종별 구성은 크게 변하였는데, 금융업, 기타, 농림수산업, 철도업의 비중이 감소하였고, 전기업, 제조업, 광업의 비중이 늘었다. 그리고, 내지 자본계열, 선내 주요 자본계열,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가 경쟁력을 가지는 업종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내지 자본계열은 철도업, 제조업, 전기업에 강했으며, 선내 주요 자본계열은 금융업에 강했으며,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는 기타에 강했다. 각 자본계열별 성장 추세를 분석할 때에는 조선 전체 업종별 구성의 변화,

각 자본계열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는 업종과 그 업종에서의 경쟁력의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5절에서는 자본계열별 조선 본점회사 납입자본금의 성장이 자본계열의 업종 구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동일 업종에서의 성장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본계열별 업종별 납입자본금에 대한 변이-할당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이-할당분석은 1921~1931년, 1931~1942년, 1921~1942년에 대해 각각 실시하였는데, 1921~1942년에 대한 변이-할당분석 결과만을 보면, 내지 자본계열이 평균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선내 주요 자본계열과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는 평균 이하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내지 자본계열은 국가적 산업효과와 자본계열별 변이효과가 모두 양의 값을 보였으며, 선내 주요 자본계열은 국가적 산업구조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음의 값을 보였으며,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는 국가적 산업구조효과와 자본계열별 변이효과가 모두 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내 주요 산업자본보다는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1921~1942년 동안의 자본계열별 변이효과를 보면, 기타 일반 선내 재적회사는 모든 업종에서 음의 값을 보인 반면, 내지 자본계열은 금융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의 값을 보였으며, 선내 주요 자본계열은 기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의 값을 보였다.

본 논문은 식민지 조선의 회사에 관한 연구에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 수록된 회사들의 자본계열을 정리하여 제시하여, 조선 본점회사의 자본계열 및 지배구조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일본 재벌 자본의 조선 진출, 국책성 회사의 자원 개발 기반 형성, 조선내 계열 형성 등이 조선 본점회사의 자본형성에 미친 영향과 그들간의 관련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적 기초를 마련했다. 셋째, 조선 본점회사의 업종구성 변화를 주도한 자본계열의 구성을 제시하여, 식민지기 공업화 및 중화학공업화의 기반 형성 및 추진 주체에 대한 분석을 촉진시킬 것이다.

[부표 1] 조선 본점회사 및 지점회사의 자본계열별 회사목록

A. 조선에 직접 진출한 내지 자본계열

자본계열		본점회사	지점회사
三井 · 三稜 · 住友	三井系	京畿染織(株), 南北棉業(株), 東洋輕金屬(株), 東洋製絲(株), 三成鑛業(株), 義州鑛山(株), 朝鮮레이온(株), 朝鮮小野田시멘트製造(株)	東洋棉花(株), 三機工業(株), 三越(株), 三井農林(株), 三井物産(株), 小野田시멘트製造(株), 日本製粉(株)
	三稜系	西鮮中央鐵道(株), 昭和廳麟麥酒(株), 朝鮮無煙炭(株)(+東拓)*, 朝鮮製粉(株), 朝鮮重工業(株)(+東拓)*	麒麟麥酒(株), 三菱商事(株), 三菱製鐵(株)
	住友系		住友生命保險(株)
日室 · 日産 · 東拓	日室系	廣長金山(株), 國境交通(株), 端豐鐵道(株), 北鮮水力電氣(株), 北鮮合同電氣(株), 新興鐵道(株), 雄基電氣(株)(=>28.7 주식 과반 취득, 38.05 北鮮合同電氣(株)에 합병), 日本마그네슘金屬(株), 日室鑛業開發(株), 朝鮮마이트(株)(=>38.11 朝鮮窒素火藥(株)에 합병), 朝鮮빌딩(株), 朝鮮送電(株)(조선_香椎)*, 朝鮮水力電氣(株), 朝鮮水電(株)(=>29.11 朝鮮窒素肥料(株)에 합병), 朝鮮鴨綠江水力發電(株)(+東拓)*, 朝鮮鴨綠江航運(株), 朝鮮窒素肥料(株)(=>41.12 해산, 日本窒素肥料(株)에 합병), 朝鮮窒素火藥(株), 朝鮮人造石油(株), 朝室水産工業(株), 平北鐵道(株), 咸興合同木材(株), 興南殖産(合資) (= >41.10 청산)	窒素肥料販賣(株), 日室運輸(株)
	日産系	朝鮮油脂(株), 朝鮮燐寸(株), 朝鮮日産化學(株)	日本水産(株), 日産自動車販賣(株)
	東拓系	江界水力電氣(株), 金坪鑛山(株), 南鮮水力電氣(株)(+조선_小倉)-, 東洋雲母鑛業(株), 東洋畜産興業(株)(+조선_賀田)-, 東拓鑛業(株), 富寧水力電氣(株), 釜山臨港鐵道(株), 北鮮開發(株), 北鮮炭礦(株), 西鮮殖産鐵道(株), 西鮮合同電氣(株)(+조선_香椎)*, 朝鮮都市經營(株), 朝鮮無水酒精(株), 朝鮮無煙炭(株)(+三稜)-, 朝鮮肥料(株), 朝鮮森林鐵道(株), 朝鮮亞鉛鑛業(株), 朝鮮鴨綠江水力發電(株)(+日室)-, 朝鮮煉炭(株), 朝鮮有煉	東洋拓殖(株), 朝鮮肥料(株)(=>28.3 만주로 본점을 이전, 경성에 지점설치)

大東文化研究 제121집

		炭(株), 朝鮮理研護謨工業(株)(일본_理研)-, 朝鮮電氣冶金(株)(+鐘紡)*, 朝鮮電力(株)(+조선_小倉)-, 朝鮮製鐵(株), 朝鮮重工業(株)(+三稜)-, 朝鮮鐵道(株)(+일본_大川)-, 朝鮮畜產(株)	
三大紡績會社	鐘紡系	鐘淵朝鮮商事(株), 鐘淵朝鮮水產(株), 朝鮮電氣冶金(株)(+東拓)-, 朝鮮製紙(株)	鐘淵紡績(株), 鐘淵實業(株)
	大日本紡系	北鮮硫炭(株), 惠山鑛業(株)	
	東洋紡系	丹陽石炭工業(株)	東洋紡績(株)
其他主要產業資本系	日鐵系		茂山鐵鑛開發(株)
	大川系	京城自動車交通(株), 京忠버스(株), 北鮮拓殖鐵道(株), 朝鮮鐵道(株)(+東拓)*, 朝鐵自動車興業(株), 朝鮮金屬工業(株), 忠北自動車運輸(株), 平北自動車運輸(株), 咸北自動車(株), 黃海自動車運輸(株)	
	大橋系	京城電氣(株)	朝鮮興業(株)
	王子系	多獅島鐵道(株), 北鮮製紙化學工業(株), 朝鮮製紙(株)(=>21.6 王子製紙(株)에 합병)	王子製紙(株)
	日電系	三陟開發(株), 三陟鐵道(株)	
	理研系	朝鮮理研鑛業(株), 朝鮮理研金屬(株), 朝鮮理研護謨工業(株)(+東拓)*, 朝鮮製鋼所(株)(+조선_加藤)-	
	中外產業系	朝鮮紡織(株), 朝鮮火藥製造(株), 朝鮮火藥銃砲(株), 中外製作所(株)	
	片倉系	大東鑛業(株)(=>38.3 경성으로 본점 이전), 朝鮮化學肥料(株)	
	親和企業系	菊根鑛山(株), 親和鑛業(株), 親和木材(株), 親和貿易(株)	
	淺野系	順安砂金(株), 朝鮮淺野시멘트(株), 朝鮮淺野카알릿(株)	朝鮮鐵山(株), 淺野시멘트(株)
	宇部興産系	西鮮重工業(株), 朝鮮시멘트(株)	
	日綿系	全南道是製絲(株), 朝鮮棉花(株)	
	安田系		帝國纖維(株)
	三興系	朝鮮織物(株)	
	大日本麥酒系	朝鮮麥酒(株)	

식민지 조선에 본점을 둔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자본계열별·업종별 추이와 구성

	日糖系		大日本製糖(株)
	橫山機械系	朝鮮機械製作所(株)	
	日本車輛系		日本車輛製造(株)
	日曹系	日曹朝鮮鑛業(株)	
	日石系	朝鮮石油(株)(=>日石, 日窒, 東拓, 三井 등의 합동사업)	
	岩井系	京城化學工業(株)	
	林兼系		林兼商店(株)

B. 조선내 주요 자본계열

자본계열		본점회사	지점회사
特殊會社		鮮滿拓殖(株)(=>40.6 해산), 朝鮮取引所(株), 朝鮮고무靴販賣統制(株), 朝鮮鑛業振興(株), 朝鮮金山開發(株), 朝鮮東亞貿易(株), 朝鮮마그네사이트開發(株), 朝鮮木材(株), 朝鮮貿易振興(株), 朝鮮無盡(株), 朝鮮米穀市場(株), 朝鮮米穀倉庫(株), 朝鮮產金買入(株), 朝鮮生命保險(株), 朝鮮石油統制(株), 朝鮮纖維雜貨元卸(株), 朝鮮水產開發(株), 朝鮮殖產銀行(株), 朝鮮洋紙配給(株), 朝鮮漁網(株), 朝鮮雲母開發販賣(株), 朝鮮運送(株), 朝鮮原皮販賣(株), 朝鮮銀行(株), 朝鮮燐鑛(株), 朝鮮林業開發(株), 朝鮮蠶絲統制(株), 朝鮮製革販賣統制(株), 協同油脂(株)	日本產金振興(株)
殖銀系		鯨水鑛山(株), 京春鐵道(株), 國產自動車(株), 金剛特種鑛山(株), 不二興業(株), 成業社(株), 若山니켈鑛業(株), 雲松鑛業(株), 利原鐵山(株), 日本高周波重工業(株), 日本마그네사이트化學工業(株), 日本炭素工業(株), 朝鮮開拓(株), 朝鮮農機具製造(株), 朝鮮商業銀行(株), 朝鮮書籍印刷(株), 朝鮮信託(株), 朝鮮郵船(株), 朝鮮貯蓄銀行(株), 朝鮮電線(株), 朝鮮製鍊(株), 朝鮮火災海上保險(株), 朝陽鑛業(株), 漢江水力電氣(株)	
其他內地人系	齋藤(久太郎)系	京城金千代會館(合名), 京城食料品(株), 京城倉庫金融(株), 京仁商船(株), 國良醬油(株), 菊花釀造(株), 金千代倉庫(株), 金千代會館(合名), 大平	

	釀造(株), 西鮮米油(株), 齊藤(合名), 齋藤酒造(合名), 齊藤精米(株), 朝鮮燒酎(株), 朝鮮製油(株), 朝鮮平安鐵道(株), 鎮南浦合同택시(株), 太陽製油(株), 平安工作所(株), 豐國製菓(株), 豐國製粉(株), 黃海農業(株)	
小倉(武之助)系	慶尙合同銀行(株), 慶州電氣(株), 固城電氣(株), 南鮮合同電氣(株)(+조선_香椎)*, 南鮮水力電氣(株)(+東拓)*, 南原電氣(株), 大光興業(株), 大邱商工銀行(株), 大邱製筵(合資), 大邱製作所(株), 大邱證券(株), 麗水電氣(株), 靈法電氣(株), 筏橋電氣(株), 鮮南銀行(株), 順天電氣(株), 安東電氣(株), 蔚山本府電氣(株), 蔚山電氣(株), 朝鮮電力(株)(+東拓)*, 濟州電氣(株), 統營電氣(株), 會寧電氣(株)	
小林(采男)系	關東機械製作所(株), 小林鑛業(株), 小林本社(株)	
岩村(長市)系	國境鑛造(株), 岩村鑛業(株), 朝鮮合同木材(株), 朝鮮合同炭鑛(株)	
田川(常治郎)系	京城軌道(株), 京城製油(株), 京城中央青果(株), 大田土地經營(株), 東洋踏鐵(株), 昭和商事(株), 龍工住宅經營(株), 龍山工作(株), 龍華製紙(株), 利川溫泉(株), 日滿土木(株), 日本放熱器工業(株), 朝鮮京東鐵道(株), 朝鮮水產(株), 朝鮮製紙原料(株), 中央物產(株), 콜라이트工業(株), 咸平軌道(株), 華城自動車(株)	
弘中(良一)系	九龍浦電氣(株), 東邦鑛業(株), 東邦黑鉛(株), 盈德電氣(株), 弘中商工(株), 弘中商會(株), 弘中商會(合資)	
立石(信吉)系	京城모터스(株), 京城自動車(株), 西日本汽船(株), 立石汽船(株), 立石商店(株), 朝鮮製罐(株)	
賀田(直治)系	大興貿易(株), 東洋畜產興業(株)(+東拓)*, 朝鮮勸農(株), 朝鮮탄닌工業(株), 朝鮮皮革(株)	賀田組(合資)
香椎(源太郎)系	京城水產(株), 釜山水產(株), 釜山日報社(株), 西鮮合同電氣(株)(+東拓)-, 南鮮合同電氣(株)(+조선_小倉)-, 日本硬質陶器(株), 朝鮮送電(株)(+일길)-, 朝鮮水產輸出(株), 朝鮮瓦斯電氣(株),	

식민지 조선에 본점을 둔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자본계열별·업종별 추이와 구성

	加藤(平太郎)系	加藤精米所(合資), 京畿黃海興業(株), 滿洲産業(株), 昭和興業(株), 朝鮮精米(株), 朝鮮製鋼所(株)(+일본_理研)*, 鎮南浦倉庫(株)	
	中川(溱)系	中川鑛業(株)	
	中村(精七郎)系	朝鮮商工(株), 中村組(株), 鎮南浦汽船(株), 鎮南浦汽船(合資)	滿鮮運輸(株)
朝鮮人系	閔大植系	桂成(株), 東邦殖産(株), 東一銀行(株), 永保(合名), 朝鮮絹織(株), 中央酒造(株)	
	金季洙系	京城紡織(株), 東光生絲(株), 東亞日報社(株)(=>40.8 해산, 43.1 회사 계속 결정), 三養社(合資), 三養商事(株), 中央商工(株), 海東銀行(株)(=>38.01 漢城銀行(株)에 계승)	
	方義錫系	共興(株), 國境倉庫(株), 文化(株)(37년판에만 관여), 密陽精米所(株)(33년판에만 관여), 北鮮交通(株), 北鮮自動車運輸(合名)(=>37.8 해산), 北靑釀造(株), 北靑電燈(株)(=>35.11 咸南合同電氣(株)에 합병), 六垓水産工業(株), 咸鏡木材(株)(39년판까지만 관여), 咸南倉庫(株), 惠山鑛酒造(株)	
	朴興植系	大東織物(株), 大同興業(株)(=>41.05 和信(株)에 합병), 鮮光印刷(株)(35년판까지만 관여), 鮮一紙物(株)(=>41.09 和信商事(株)으로 통합), 和信連鎖店(株)(=>41.09 和信商事(株)으로 통합), 和信商事(株), 和信(株)	

출전: 본문 참조.

- 비고: 1. 여러 자본계열에 관련회사로 등장하는 것은 각 자본계열에 중복하여 제시하였으며, (+??)의 형태로 중복된 자본계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으며, 주된 자본계열에는 \*를 붙여 두었다.  
 2. 본 논문의 분석과 관련된 범위에서 회사의 변동에 대한 정보는 (=>??)의 형태로 회사 뒤에 기재해 두었다.

## 참고문헌

- 東亞經濟時報社,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録』, 各年版  
東洋經濟新報社, 『年刊朝鮮 第1回 昭和17年版, 朝鮮産業の共榮圈參加體制』, 大海堂印刷株式會社, 1942  
東洋拓殖調査課, 『東洋拓殖株式會社要覽』, 大日本印刷株式會社, 1943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 『日本窒素事業概要』, 1940
- 김성수, 『일제하 한국경제사론』, 경진사, 1985  
姜在彦 編, 『朝鮮における日窒コンツェルン』, 不二出版, 1985  
大塩武, 『日窒コンツェルンの研究』, 日本經濟評論社, 1989  
柴田善雅, 『植民地事業持株會社論』, 日本經濟評論社, 2015  
趙璣濬, 『全訂版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大旺社, 1982
- 강정원, 「일제 전시체제기 朝鮮林業開發株式會社の 설립과 운영」, 『역사문화연구』 66, 한국의 국어대학교역사문화연구소, 2018  
\_\_\_\_\_, 「1930년대 북선제지화학공업(주)의 설립과 운영」, 『역사와경계』 123, 부산경남사학회, 2022
- 김동철, 「부산의 유력자본가 香椎源太郎의 자본축적과정과 사회활동」, 『역사학보』 186, 역사학회, 2005
- 김명수, 「식민지 조선경제와 자본가 한말 일제하 賀田家の 자본축적과 기업경영」, 『지역과 역사』 25, 부경역사학회, 2009
- 김은정, 「일제의 조선무연탄주식회사 설립과 조선 석탄자원 통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9
- 박이택, 「식민지 조선의 기업지배구조-한국인 회사와 일본인 회사의 비교」, 『경제사학』 49, 경제사학회, 2010  
\_\_\_\_\_, 「식민지 조선에 있어 회사의 폐업률에 대한 통계적 고찰」, 『대동문화연구』 7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_\_\_\_\_, 「식민지 조선에 있어 회사 자본금의 성장률에 대한 통계적 고찰」, 『한국학연구』 35,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_\_\_\_\_,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광역권 인구가동: 변이-할당 분석(shift share analysis)으로부터의 접근」, 『아세아연구』 55(2),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2012  
\_\_\_\_\_, 「식민지기 인천에서의 회사 추이와 그 분포적 특징」, 『인천학연구』 29, 인천대학교인천학연구원, 2018

- \_\_\_\_\_, 「20세기 전반 한국·일본·대만에서의 회사의 성장-비교경제발전론적 고찰」, 『경제사학』 43(1), 경제사학회, 2019
- \_\_\_\_\_, 「20세기 전반 서울, 도쿄, 다렌의 임금-이중구조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사학』 45(3), 경제사학회, 2021
- 배석만, 「朝鮮重工業株式會社 經營資料의 內容과 性格」, 『항도부산』 20,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4
- \_\_\_\_\_, 「일제시기 부산의 대자본가 香椎源太郎의 자본축적과정과 활동-日本硬質陶器의 인수와 경영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25, 부경역사학회, 2009
- \_\_\_\_\_, 「제조일본인자본가 다테이시 요시오(立石良雄) 일가의 기업 활동」, 『한일민족문제연구』 32, 한일민족문제학회, 2017
- 이수열, 「식민지 시기 신의주의 일본 제지업」,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7,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7
- 이승렬, 「1930년대 전반기 일본군부의 대륙침략관과 ‘조선공업화’정책」, 『國史館論叢』 67, 국사편찬위원회, 1996
- 이형식, 「‘조선의 전기왕’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와 조선사회」, 『동양사학연구』 145, 동양사학회, 2018
- 정안기, 「전시기 弘中商工(주)의 성장전략과 경영역량-성장·위기·재건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53, 경제사학회, 2012
- \_\_\_\_\_, 「1930년대 電力國策, 「朝鮮送電(주)」의 연구」, 『동방학지』 16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
- \_\_\_\_\_, 「1930년대 朝鮮型特殊會社 ‘朝鮮林業開發(주)」의 연구」, 『경제사학』 57, 경제사학회, 2014
- \_\_\_\_\_, 「1930년대 朝鮮型特殊會社, 「朝鮮電力(株)」의 연구」, 『동방학지』 17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5
- \_\_\_\_\_, 「1930년대 조선형 특수회사, 「조선압록강수력발전(주)」의 연구」, 『중앙사론』 47,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8
- \_\_\_\_\_, 「1930년대 조선형특수회사, 「조선중공업(주)」의 연구」, 『사회와역사』 102, 한국사회사학회, 2014
- 香野展一, 「일제하 中部幾次郎의 林兼상점 경영과 수산재벌로의 성장」, 『동방학지』 15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1

# The Trend and Composition of the Paid-in Capital of the Colonial Korean Headquarters Company by Capital Affiliate and Business Industry

Park, Yi-taek

This paper integrates the information on the composition of Colonial Korea's industrial capital by capital affiliate in early 1942 recoded in Annual Joseon published by Toyo Keizai Inc. with the information of Joseon Eunhaeng Hoesa Johap Yorok(Biennial Reviews on colonial Korea's bank, corporation and cooperative associations).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recoded in Annual Joseon and the trend of the composition of the paid-in capital of the Colonial Korean headquarters company by capital affiliate, using the newly compiled data in this paper.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the analysis of the capital affiliates and governance structure of the Colonial Korean headquarters company. And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analyzing the impact of Japanese chaebol capital, state-run companies, and Colonial Korean-based affiliates on the development of Colonial Korean headquarters companies and Colonial Korea's industrialization.

Key Words : headquarters company, paid-in capital, capital affiliate, business industries,  
shift-share analysis